## '대목은 옛말'…핼러윈 앞두고도 잠잠한 유통가

광주, 이태원 참사 추모 분위기에 할인·이벤트 등 진행 안 해 11월 빼빼로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에 연중 최대 할인 진행

지역 유통업체들이 핼러윈(10월 31일) 마케팅 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고려해 국민적 추모 분위 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소비 심 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고객을 유인할 마케팅 방 안을 흘려보내기엔 아쉬워 11월 계획된 코리아세 일페스타, 중국 최대쇼핑축제 광군제와 빼빼로데 이, 블랙프라이데이 등과 연계해 매출로 이어지도 록 이벤트를 구상중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 전반에서 핼러윈 관련 할인 또는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핼러윈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2020년대 들어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큰 행사로 자 리잡았다.

유통업체들은 매년 핼러윈 전후로 각종 유령 등을 테마로 하는 대대적 마케팅 행사를 통해 관련 상품 판매를 늘리며 매출 확대의 동력으로 활용해 왔다

유통업체들은 그러나 이태원 참사 이후로는 핼러윈 관련 개별 상품 판매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특별 매장을 꾸리는 등 별도 마케팅 행사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도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별도의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도 개별 소품 판매 외에 예전 진행했던 핼러윈 테마 이벤트 등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도 핼러윈 특 수를 겨냥한 한정판 상품 판매를 고려하지 않는 실 정이다.

유통업계는 대신 연중 최대 쇼핑 성수기로 꼽히 는 11월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11월 초에는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 제와 빼빼로데이가, 11월 말에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유통업계 '대목'으로 꼽힌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 연중 마지막 행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막바지 물량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각 사마다 역량을 총 동원해 매출을 극대화 할 것으로 보이다.

이에 맞춰 신세계그룹은 내달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G마켓(지마켓) 등 온·오프라인 계열사가 모두참여하는 연중최대 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쓱데이'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역시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핼러윈이 국내 유통업계에서 중요한 마케팅 기회로 자리 잡았지만, 국가적분위기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추워지기 전에 어그 장만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고객에게 어그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025년 1월 말까지 양털 신발로 유명한 '어그(UGG)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그 매장에서는

따뜻하고 활동성이 좋은 양털 신발과 로퍼, 블로퍼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전남도, 소상공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집중

백년가게 등 18개 업체 선정…포장패키지 등 전략 수립 지원

전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차별화를 이루도록 소상공인 및 상점가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경력의 제조업체, 백년가게, 기술숙련자(명장·명인)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상점가로, 자신만의 브랜드·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소상공인 및 상점가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12개 업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해 리뉴얼 브랜드 9개 업체, 신규 브랜드 9개 업체, 총 18개 지원 업체를 선정, 업체당 2400만원에서 최대 27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일과 4일 '2024년 소상공인 및 상점가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중간보고 회'를 개최, 지원기업 대표와 디자인 수행기업 및 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원 기업의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 업체와 자문위원 간 의견 및 방향성도 공유했다.

오는 11월에는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진행, 지원 업체의 브랜드·디자인(BI·CI) 및 제품 포장 패키지 등 과업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지원 업체가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 발전하도록 방향 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 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신세계, MZ 겨냥 신관 새단장…브랜드 20곳 개편

할인·증정 이벤트 등 다양

광주신세계가 17일 MZ세대들을 겨냥한 영패션 브랜드를 신규 입점시키고, 리뉴얼 오픈하는 등 신 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광주신세계는 신관 지하 1층에 신규 매장 5곳과 기존 매장들을 리뉴얼 오픈하고, 본관에 있었던 영 패션 브랜드 10곳도 신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총 20곳을 개편해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했다.

슈퍼드라이는 블록코어, 밀리터리 등 스포티한 상품들로 M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브랜드로, 올 해 국내에 처음 런칭돼 보이그룹 '앤시티 드림'이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일부 제품이 품절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슈퍼드라이는 신규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양말을 선착순 증정한다.

르마드는 현대적인 실내복으로 이름 높다. 르마드는 다양한 디자인의 편안한 의류로 온라인과 오 프라인 모두 인기가 높다. 르마드는 광주신세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정식 매장을 오픈하며, 오픈 기 념으로 FW상품들을 20% 할인하고 구매고객에게 리유저블 백을 선착순 증정한다.

노이어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미니멀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광주신세계 오픈 기념으로 20% 브랜드 데이 할인 혜택과 더불어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브러쉬 캡을 증정하는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바지로 이름높은 리바이스 역시 오픈 기념으로 10만원 이상 구매시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경품을 증정한다.

더불어 본관 5층에서 수요가 많았던 '인사일런 스', '마리떼 프랑소와저버', 'LEE', '캉골' 등 대 표적인 영패션 브랜드들도 신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라이프워크', '뉴에라', '마인드브릿지', '지오다노', '폴햄' 등도 리뉴얼 오픈한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신관이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영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새단장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닭고기 좋아하는 부위만 골라 먹는다

이마트 광주점 부분육 매출 증가

이마트 광주점 닭고기 매출 중 다리, 날개 등 각 부위를 판매하는 부분육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 다. 이는 1인가구 증가 및 닭고기 소비 트렌드 변 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16일 이마트 광주점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0 월 15일까지 계육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6% 신 장했다. 특히 닭 부분육 매출이 13.7% 신장하면서 전체 계육 매출 신장을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닭 다리살이 51.6%로 가장 많이 신장했고, 아랫다리(16.7%), 날개(7.2%) 순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계육 매출에서 부분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닭 부분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지난 2022년 35.1%에서 올해(10월 14일 기준) 39.3%로 4.2%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닭 한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9%에서

45.4%로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닭 한마리가 담긴 대용량 상품을 구입하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닭고기 소비 트렌드 역시 과거 닭볶음탕, 백숙 등 에서 최근 샐러드에 곁들여 먹거나 혼술 안주로 부 분육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닭 부위에서 좋아하는 부위로만 구성된 각종 밀키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부분육 비중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승기 이마트 광주점장은 "최근 닭 소비 트렌드 에 발맞춰 부위별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상품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